

우하람 개막 첫날 男 다이빙 1m 스프링보드 3위로 결승행



12일 광주시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1m스프링보드 경기에서 우하람이 멋진 연기를 펼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결선 진출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막을 열었다.

우하람은 12일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6차 시기 합계 369.10점을 받아 3위에 올랐다.

김영남(국민체육진흥공단)은 349.10점으로 13위를 기록, 아쉽게 12위까지 주어지는 결선 진출 자격을 놓쳤다.

중국의 왕중위안과 평젠핑이 각각 429.40과 410.80을 받아 1·2위 자리를 차지했다.

전체 44명 중 40번째 등장한 우하람은 관중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스프링보드 위에 섰다. 풀을 등지고 선 우하람의 오른쪽 어깨에는 2020년 도쿄 올림픽 본선 무대의 꿈이 담긴 오륜기가 새겨져 있었다.

한차례 보드를 차고 오른 우하람은 두 바퀴 반을 돈 뒤 입수했다. 난이도 3.4의 동작을 소화한 그는 1차 시기에서 69.70점을 받아 2위로 예선을 시작했다.

난이도 3.3의 2차 시기가 끝난 뒤에는 우하람의 이름이 순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기도 했다. 1.2차 시기 합계 점수는 139.00점.

3차 시기에서 우하람이 67.20점, 왕중위안이 75.20점을 받으면서 두 선수의 위치가 바뀌었다. 그리고 왕중위안과 평젠핑이 5·6차 시기에서 고난도 연기를 펼쳐며 1·2위로 예선을 마쳤다.

김영남은 5차 시기에서 75.20점을 올리며 9위로 도약했지만 마지막 시기에서 54.00점을 보태는 데 그치며, 총점 349.10점으로 13위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결선 마지막 티켓을 따낸 미국의 라파엘 디아

내일 결승서 메달 도전

여자 김수지도 7위로 결선 진출

광주시체육회 권하림은 예선 탈락

중국 선수들 남·녀 모두 1·2위 차지

스와는 2.9점 차였다.

기본 종목 결선을 통과한 우하람은 14일 1m 스프링보드 결승에 나선다. 앞서 13일에는 김영남과 짝을 이뤄 3m 스프링보드 싱크로나이즈드 예선과 결승을 치른다.

여자부에서도 김수지(울산광역시청)가 결승에 진출하며 활짝 웃었다.

김수지는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예선에서 5차 시기 합계 238.95점을 받아 7위로 결선 티켓을 따냈다.

1차시기에서 49.20점을 받아 12위로 출발한 김수지는 2차 시기에서 49.40점을 받아 6위까지 순위를 끌어올렸다.

그리고 4차 시기에서는 더욱 이름을 상위권에 올렸다.

앞으로 달려든 김수지는 몸을 뒤집는 리버스에 이어 파이크 동작으로 한 바퀴 반을 돌면서 50.40점을 얻었다. 총점 193.85점이 이 된 김수지는 4위로 상승하면서 사실상 결승 진출을 확정했다.

같은 종목에 출전한 권하림(광주시체육회)은 5차 시기 합계 217.80점으로 17위에 머물면서, 결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하게 됐다.

한편 여자부에서도 중국이 1, 2위 자리를 차지했다. 287.95점을 얻은 천이원이 1위에 올랐고, 장아니가 257.65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2일 광주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여자 1m 스프링보드 예선에 참가한 대한민국 김수지가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뜨거운 응원에 감사...결승서 자신있게 하겠다”

다이빙 1m 스프링보드 결승행 우하람

메달 욕심나...역량 최대한 발휘

싱크로가 중요...실력대로 하면 메달

관중은 물론 선수들에게도 '낯선' 응원이었다. 12일 오전 11시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에서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남자 1m 스프링보드 예선 경기가 치러졌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첫 경기에는 한국 다이빙의 간판 우하람(국민체육진흥공단)과 함께 김영남(국민체육진흥공단)이 난란히 출전해 결승 무대를 타진했다.

수영 불모지로 이야기되는 광주에서의 다소 생소했던 다이빙 경기였다.

1m 높이의 보드에서 뛰어올라 찰라의 연기를 펼치는 만큼 선수들의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종목.

하지만 낯선 다이빙 종목을 접한 관중들은 선수들이 숨을 고르는 동안에도 부지런히 박수와 함성을 보냈다.

경기장 화면에 '정숙해주시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나오기도 했지만 함성은 계속됐다. 특히 우하람과 김영남이 나올 때의 분위기는 더 뜨거웠다.

선수들에게도 '낯선' 응원이었다. 하지만 선수들은 '낯선' 응원에 오히려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쉽게 13위에 머물며 결선에 진출하지 못한 김영남은 "우리나라에서 한니까 긴장은 됐다. 환호성도 많이 해주셨다. 저희가 이렇게 환호성을 많이 받은 게 처음이다"며 "뭔가 묘한 감정이 들었다"고 언급했다.

경기 집중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 또한 감사했다. 응원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며 "박수쳐주셔서 감사하다. 실력은, 제가 못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최고 순위인 3위로 예선에 진출한 우하람도 "관중이 많이 오셨는데 그것에 대해 많이 감사했

고 처음 느껴보는 것이었다. 세계선수권에서(우하람을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건 처음이었다"며 "워낙 시합에 집중하다 보니까(준비 동작에서 박수 소리가)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았다"고 웃었다.

뜨거운 응원 속에 메달에 도전하게 된 우하람은 '자신 있게' 결승을 치르겠다는 각오다.

우하람은 "생각했던 결과보다 좋은 성적이 나와서 좋다. 무난하고 안정적으로 경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큰 실수도 안 나와서 이런 좋은 결과 나온 것 같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있게 하는 것이다. 자신 있게 아쉬움 없이 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는 게 제일 큰 목표다"고 언급했다.

또 "메달에 솔직히 욕심이 나지만 그것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목표가 일단 1m가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대회를) 알아가는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싱크로가 중요하기 때문에 싱크로에 중점적으로 두고 잘 치르겠다. 실력대로 하면 충분히 메달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1652 point
68247581 point
251649783 point
130758492 point
246371280 point
462610973 point
576214302 point
691749802 point
874114002 point

J6 10 point
J5 8point
J3 6point
J2 5point
J1 4point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창밖 풍경

전원주택전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 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 810㎡, 건평 : 83㎡, 매매가 :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 660㎡, 건평 : 83㎡, 매매가 :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